

9세 딸을 55세 남성에게 판 아빠



▲ 9세 소녀 말릭(왼쪽)과 말릭의 아버지. 사진=indiatoday.in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9세 소녀 파르와나 말릭은 지난 달 말, 친구들과 논 후 집에 돌아왔다가 낯선 남성과 마주쳤다. 55세의 이 남성은 고작 9살인 말릭을 신부로 '사기 위해' 찾아온 사람이었다. 말릭의 부모와 상의를 마친 그는 말릭에게 조만간 데리러 오겠다는 말을 남긴 뒤 떠났다.

지난 4년간 말릭의 가족은 하루에 몇 달러를 벌며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해 왔다. 하지만 지난 8월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 뒤 삶은 더 어려워졌다. 결국 말릭의 부모는 몇 달 전 12세에 불과한 말릭의 언니를 같은 방법으로 팔아야 했다. 언니가 팔려간 뒤 생긴 돈으로 몇 달을 버틸 수 있었지만 돈은 금새 바닥이 났다. 결국 말릭의 부모는 말릭을 팔기로 결정했다.

말릭의 아버지 압둘 말릭은 "우리는 팔을 팔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면 곳까지 가기도 했고, 친척들로부터 많은 돈을 벌리기도 했다. 아내는 난민캠프의 다른 주민들에게 음식을 구걸한 적도 있다."면서 "8명의 가족을 먹여살리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죄책감과 수치심, 걱정 등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말했다.

며칠 후 말릭을 사기로 한 남성이 찾아왔다. 그는 말릭의 아버지에게 현금과 가축 등을 건넨 뒤 말릭을 데려갔다. 말릭의 아버지는 그에게 "이 아이는 당신의 아내다. 제발 아이를 때리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남겼다.

아내 민낯 처음 본 남편 '이혼 소송'

이집트의 한 남성이 결혼 한 달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사유는 아내의 얼굴 때문이었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첫날밤을 치르고 다음 날 아침, 화장기 없는 아내의 얼굴을 봤다.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난생처음 본 여자였다. 결혼 전 짙은 화장에 깜빡 속았다. 아내의 민낯이 너무 못생겨서 도저히 마주 보고 있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남성은 페이스북에서 아내를 처음 만나 결혼에 이르렀다. 결혼 전에도 테이트는 몇 번 했지만 민낯은 본 적 없다는 게 남편 설명이다. 남편은 "결혼 전 사귀던 여성과 너무 달라 충격을 받았다. 페이스북에서 본 아내의 사진과 민낯은 완전 판판이었다. 속아서 한 결혼이다. 사기나 마찬가지"라면서 "이혼하고 싶다."고 애원했다.

한편 온라인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커플은 오프라인에서 만난 연인보다 더 빨리 이별하는 것으로



▲ 사진=타운뉴스DB

로 나타났다. 2014년 미시간주립대 공동연구팀이 4,002명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한 결과, 교제 후 1년 안에 이별한 경우는 온라인을 통해 처음 만난 연인이 오프라인에서 첫 만남을 가진 연인보다 28% 더 많았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만나 결혼까지 한 부부의 이혼율은 반대의 경우보다 무려 3배나 높았다. 결과적으로 온라인이 만남의 창구 역할은 하지만 충실한 관계로 이어질 확률은 오프라인을 통한 만남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다.

10대 제자의 딸 안고 수업한 교사



▲ 사진=larepublica.pe

출산과 육아로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할 뻔한 18살 여학생이 선생님 덕분에 고등학교 졸업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

아르헨티나 중학교 5학년(미국의 12학년) 재학 중인 루드미아 디산테(18)는 지난 8월 아기를 출산했다. 디산테는 최근 코로나19 일상 회복 조치로 등교 수업이 재개되면서 학교에 나가고 있지만 졸업이 힘들었다. 출산과 육아로 원격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원격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매주 토요일 보충수업을 하고 있지만 디산테는 3개월 된 딸 때문에 수업에 참석하기 어려웠다.

디산테는 "평일에는 아기를 봄을 도우미가 오시지만 주말엔 내가 아니면 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다."고 했다.

도움의 손을 내민 건 선생님이었다. 디산테의 사정을 알게 된 이 학교의 페데리코 텐레이로 교사는 "방법을 찾아보자."면서 토요일에도 무조건 학교에 나오라고 말했다.

지난 30일 디산테는 딸을 데리고 토요 수업에 참석했다. 하지만 수업 중에 딸이 울어 난감한 처지가 됐다. 그러자 텐레이로 교사는 디산테에게 다가가 아기를 달라고 했다. 5자녀의 아빠이기도 한 텐레이로 교사는 능숙하게 한 손으로 아기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교재를 들고 수업을 진행했다. 얼마 후 아기는 교사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교사의 사진을 찍어 SNS에 공유한 디산테는 "선생님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낀다."면서 "평생 은혜를 잊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PWC 근무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